



역사 속에서 '건강한 나' 자신의 삶을 찾아보기

## 역사 속 '청렴'

01	경남교육 청렴뉴스(역사 속 청렴)	2021. 9.
 <p>순천</p>	<p>혹시 전남 순천에 가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갈대밭 사이로 흐르는 몽환적 길이 아름다운 세계 5대 습지 순천만, 전라도의 깊은 맛을 느끼게 해 주는 꼬막 정식, 정말 모든 게 완벽합니다.</p>	
 <p>팔마는 8마리의 말을 의미함</p>	<p>순천을 다니다 보면 무언가 반복되는 이름이 발견되는데요. 팔마 중학교, 팔마 실내 수영장, 팔마 시민예술제 ……. 순천 팔마! 궁금하시지요? 팔마는 무엇일까요? 팔마(八馬)는 말 그대로 여덟 마리의 말을 의미합니다. ‘말’하면 제주도일 텐데요. 왜 순천 곳곳에 ‘팔마’와 관련된 이름이 많을까요?</p>	
 <p>순천이 관행 : 백성들이 말을 바치 전별금</p>	<p>그 이유를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순천에 사또로 부임했던 ‘최석’이라는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최석은 고려 말 충렬왕 때 인물인데요. 과거 급제하고 승진한 후 승평부사로 발령이 납니다. (승평은 지금의 순천, 부사는 사또를 의미합니다.) 이어 그는 순천에서 임기를 마친 후 고려 수도 개경으로 돌아가는데요. 당시 순천은 지역을 관리했던 사또가 임기 후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때 일종의 전별금처럼 백성들이 돈을 모아 말을 산 후 그 말을 바치는 관행이 있었습니다.</p>	
 <p>말 한마리 가격 = 지금 차 현대값</p>	<p>당시 말 한 마리 가격이 지금의 차 한 대 값이니 백성들에게는 큰 부담이 되겠지요. 부사 임기가 3년이니 3년마다 순천 사람들은 늘 말을 준비했던 것입니다. 최석 역시 순천 백성들이 마련한 8마리에 짐을 싣고 개경으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전!</p>	



개경에 도착한 최석은 데리고 온 말을 그대로 순천으로 돌려 보냅니다. 관행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이 가지려 하지 않은 것도 놀랄 일인데요. 알고 보니 돌려보낸 말은 8마리가 아니라 9마리였습니다.

왜 한 마리 말이 추가되었을까요? 최석 자신이 순천에 부임할 때 타고 간 암말이 망아지를 낳았는데요. 이 망아지가 순천의 녹을 먹고 태어났으니 순천의 것이라고 판단하여 총 9마리를 돌려 보냈던 것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관행이라는 것을 거부하는 게 사실 어려운 일입니다. 이제까지 그렇게 해 왔고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옳지 않습니다.’라 이야기한다는 게 쉽지만은 않지요. 청렴이라는 것은 기존에 ‘쌓여온 시간’과 ‘얽혀있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끊어 내야 하는 용기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순천 사람들은 무척이나 당황한 한편 너무나 감사해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스스로 돈을 모아 최석의 공덕비(功德碑)를 세웁니다. 이것이 바로 순천의 팔마비(八馬碑)입니다.

이 공덕비를 세운 이후로는 말 바치는 관행이 없어졌다고 하네요.

결과적으로 팔마비는 그 자체로 청렴을 상징하게 된 것이지요.



혹시 조선시대 선비 이수광이라는 분 들어보셨나요?

이수광은 우리나라 최초의 백과사전이라 할 수 있는 <지봉유설(芝峯類說)>의 저자입니다. 그는 최석에 관한 글이 실린 <동국여지승람(東國輿地勝覽)>을 읽다가 감동을 받았는데요. 운명인가요? 이수광은 순천의 사또로 부임하게 됩니다. 최석의 후임이 된 셈인데요. 그는 임진왜란, 정유재란을 거치면서 팔마비가 없어지자 마을의 원로들과 함께 팔마비를 중건했습니다. 그것이 오늘날까지 내려오는 것이지요.



결국 팔마비는 최석을 기억하기 위한 공덕비에 그치는 것이 아닌, 후세 관리들에게 가슴에 새기라는 경계의 지표이자 이정표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역사를 공유하는 이유는 앞선 세대의 청렴 경험을 통해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기 위함일 테지요.

‘나’는 부적절한 관행을 깰 수 있을지, 끊임없이 자기 절제를 통해 중용의 길을 걸을 수 있을지 상황마다 고민의 지점이 생길 겁니다. 그때 바로 역사의 페이지를 넘겨 보세요. 놀랍게도 이미 그 고민, 역사에 모두 있습니다.

선배들이 인생을 걸고 남긴 청렴의 경험을 놓치지 마세요.



[자료 출처]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청렴북러닝 ‘역사 속 청렴 여행’

(<https://www.youtube.com/watch?v=pqbnoT7CqdU>)

### ♣ 참고자료

순천역사바로잡기 특위에 따르면 시에서 설치한 팔마비와 죽도봉 팔마탑 등에 새겨진 연도와 말의 숫자 등이 역사서인 고려사, 고려사절요, 신증동국여지승람, 승평지 등에 기록된 유래와 다르게 기재돼 있다고 한다.

고려사 등에는 “승평부사 최석의 부임 시 주민들이 관례에 따라 말 8필을 주었고, 최석은 부사 재직 당시 본인의 말이 낳은 망아지를 합해 9마리를 되돌려 주었다”고 기록돼 있다. 하지만 백과사전과 일부 언론에 “주민들이 준 말 7필과 도중에 낳은 망아지 1마리를 합해 8마리를 되돌려 보냈다”고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는 것이다.

최정원 특위위원장은 “팔마비와 팔마정신을 통해 순천 역사를 재조명하고 역사적 오류가 있는 각종 관련 자료를 바로잡아 올바른 이해로 역사적 정체성을 확립하고 문화적 자부심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자료 출처] 2017. 9. 5. 한국일보